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원 위성곤 / 간사 : 국회의원 양이원영>

2023 / 06 / 15 (목)

수신: 각 언론사 외교, 원전, 환경 담당기자(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날짜: 2023년 6월 15일(목)

문의: 양이원영 의원실 (서영준 비서관 010-6427-9787)

총 분량: 4쪽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일일대변인 자처

- 도쿄전력 측, 오염수 시료채취 시 섞지 않고 채취했다고 인정
- 오염수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 보도 사실 아니라는 국무조정실 주장, 일본대사관 주장과 동일
- 도쿄전력 시료채취 문제를 IAEA 시료채취로 동문서답, 일본대사관 주장을 국무조정실이 대변

6월 15일 오늘 국무조정실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입장을 대변하는 '일일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일일브리핑 보도참고자료 <5. 최근 제기된 오염수 관련 이슈>에서 ① “오염수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 관련 보도 내용을 지적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 시료채취 시 섞지 않고 채취했다고 자인한 보도내용인데, 국무조정실은 이를 반박하며 이와 상관없는 IAEA의 시료 채취를 언급했다. 이는 앞서 보도내용을 반박한 일본 대사관의 주장과 동일하다.

(*일본 대사관 반박 내용 중: 보도에 언급된 '교반' 작업부분은 오염수 방류 시설 설계를 위해 이뤄진 시료 채취 부분으로 IAEA가 시료 채취한 것과는 관련 없음.

*국무조정실 일일브리핑 내용 중: 해당 보도와 달리, IAEA가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에 동문서답으로 대응했는데,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이 오늘 이를 대변한 것이다.

도쿄전력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64개 핵종 분석을 위한 K4, J1-C, J1-G탱크군에서 시료채취는 교반없이(섞지 않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IAEA의 샘플 채취는 세 차례뿐이며 섞어서 시료 채취한 것은 그 중 한 차례뿐이다. 세 차례 걸쳐 채취한 시료 대상 오염수 탱크도 제각각이라서 섞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도쿄전력이나 IAEA가 진행한 시료채취는 균질성, 대표성이 없어서 오염수 탱크 현황이나 다핵종제거설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의원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일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힌 국무조정실은 어째서 일본정부의 논리를 대변하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브리핑하는 국무조정실 일일브리핑은 당장 폐지하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끝/

#붙임1.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 보도 참고자료 중 발췌 1부

#붙임2. 국내 언론사 보도에 대한 일본 대사관 측 반박내용 1부

#붙임3. 일본 대사관 측 반박내용에 대한 국내 언론사 재반박 내용 1부

< 5. 최근 제기된 오염수 관련 이슈 >

□ 다음으로, 최근 언론 등이 제기한 오염수 관련 문제 중 사실관계를 확인 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오염수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

□ 먼저, 지난 6일 보도 중,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해당 보도와 달리, IAEA가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되었습니다.

○ 지난달 31일에 보고서가 발표된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시료는 교반장치가 설치된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교반 등 균질화 작업을 거쳐 IAEA 참관하에 채취되었습니다.

○ 분석이 진행중인 2차, 3차 시료는 교반장치가 없는 일반 탱크인 G4S-B10, G4S-C8에서 두 차례 채취해 10분 간 서로 혼합해 IAEA 참관하에 채취되었습니다.

○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교반작업 없이 윗물만 채취했다’는 시료는 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도 전혀 다른 시료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 7일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보도의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붙임2. 국내 언론사 보도에 대한 일본 대사관 측 반박내용

1. 보도에 언급된 '교반' 작업부분은 오염수 방류 시설 설계를 위해 이뤄진 시료 채취 부분으로 IAEA가 시료 채취한 것과는 관련 없음.
2. IAEA가 보고서에서 시료 채취한 절차 적절하다, 이런 평가 부분과는 맥락이 다른데도 이를 같은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임.

#붙임3. 일본 대사관 측 반박내용에 대한 국내 언론사 재반박 내용

1번 반박에 대해

- 회의에서 도쿄전력 측은 K4, J1-C와 J1-G 탱크군에서 교반 없이 농도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함. IAEA의 샘플링 채취 시에 교반 안 했다고 보도한 바 없음.
- 도쿄전력의 기존 업무 절차 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임. 이는 도쿄전력이 IAEA가 평가한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평소엔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며, IAEA의 평가를 내세워 전 과정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처사임.

2번 반박에 대해

- 앞서 언급한 대로, 도쿄전력은 자사의 정확, 방출 프로세스가 적확하다는 것을 공식 확인받기 위해 IAEA 차원의 검증에 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가 확인하고 인정한 절차와 다르게 자체 샘플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도쿄전력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 IAEA의 모니터링단이 현장에 있던 없던 상관 없이 지금도, 앞으로 30년의 방류 기간 동안에도 모든 절차는 IAEA 모니터링단이 직접 보고 인정한 절차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함.